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 "역사·문화 알리는 전당..."	1
江原日報	12면	강릉포교당 관음사 100주년 기념 대법회	2
강원도민일보	11면	관음사 창건 100주년 "포교에 더욱 매진"	2
江原日報	03면	오대산 품에 안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3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시 농업인의 날	4
江原日報	12면	오색케이블카 성공 염원 안고 걸었다	4
강원신문	온라인	'김진태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진행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제60회 원주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6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디피코 미지급 인건비 40억원 우선 지급" 촉구	7
江原日報	06면	"디피코 인건비 40억 조속히 지급해야"	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반도체 임시 교육센터 이전하나...강원 반도체 사업 초부터 ...	8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항~러시아 카페리 출항시간 변경..."	9
NEWSIS	온라인	강정호 도의원 '속초~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 출항시간 변...	10
춘천MBC	온라인	강원 119 안전센터 77곳 중 46곳 급식시설 없어	11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 119안전센터, 급식시설 설치 전국 최하위	12
연합뉴스		'급식실 없는' 강원 119안전센터 수두룩...대책 마련 촉구	13
江原日報	06면	자치도의회, 도 산업국 행정사무감사	14
강원도민일보	23면	최재석 의원, 책읽는 의원 대상 수상	14
江原日報	10면	다문화인식개선콘테스트 그림공모전 시상식	14
KBS 춘천	온라인	내년 강원도 예산 역대 최저 증가폭...자체 사업 20% 이상 ...	15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제28회 강원초등교원체육대회 개최	1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춘천시펜싱협회, 펜싱체험행사 개최	16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 DMZ배 민.군.관 축구대회	1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식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인가	18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정선여중·고동문화 '동문의 밤' 행사	1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

江原日報	01면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사업 통해 '새 역사' 쓴다	20
江原日報	01면	월정사 돌아온 실록·의궤	20
江原日報	02면	110년만에 집으로 "다함께 이뤄낸 기적" 환희로 뜨거운 평...	21
강원도민일보	01면	내년도 강원도 예산 7조5862억원 편성	22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형 첨단산업 육성 방점...복지비 사상 첫 3조원 돌파	23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 치안센터 62% 축소 "지구대 가려면 버스로 1시간"	23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내년 축제 예산 '싹둑' 문화계 한숨	24
강원도민일보	05면	열흘 전 낮 기온 29도 찍은 강릉, 기습 추위에 첫 얼음 '꽂...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첨단기술 분야 비중 확대 시급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내년 예산 주민욕구 부응 따져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내년 총선 선거구 조기 확정, 유권자 판단 도와야	27
江原日報	19면	[사설] 내년 국비 확보, 국회 통과까지 최선 다해야 한다	28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평창 월정사 현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응천 문화재청장,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유상범·이철규·이채익·배현진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호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 “역사·문화 알리는 전당 되도록 노력”

실록 원본 국내 유일 상설 전시

이채익·배현진 의원에 감사패

김 지사 “문화유산 알리는데 최선”

110년만에 오대산으로 돌아온 환수 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오대산 사고본을 상설 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12일 정식 개관했다.

평창 오대산 입구에 새로 문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이날부터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상설 전시를 시작했다. 국내에서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상설로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다.

앞서 지난 11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개최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개관식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최응천 문화재청장,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유상범·이철규·이채익·배현진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심현정 평창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귀환과 박물관 개관을 축하했다.

이채익·배현진 국회의원에게는 오

대산 사고본의 평창 귀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최응천 청장은 “정부와 민간, 불교계의 노력으로 돌아온 오대산 사고본 실록이 이번에 원소장처로 환지분처하게 됐다”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통합 연구기관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비운의 역사를 가졌던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며 “힘들게 가져온 유산을 잘 알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념스님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활력이 생겨난다는 마음으로 문화재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됐다”며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단순히 기록물을 살리는 것 뿐 아니라 역사도 함께 살리는 곳으로 박물관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기존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운영했던 실록·의궤박물관을 새 단장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다. 김진형

▶ 관련 기사 22면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지역 12면



강릉포교당 관음사 100주년 기념 대법회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주지: 무주스님) 창건 100주년 기념 대법회가 12일 경내 극락전 앞뜰에서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 설암 강릉불교사암연합회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권기혁 관음사 신도회장, 김남철 100주년추진위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지역 11면



불기 2567년 강릉포교당 관음사 창건 100주년 기념 봉축법회가 12일 관음사 극락전에서 열렸다.

관음사 창건 100주년 “포교에 더욱 매진”

봉축법회서 기념 책 발간식·세미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강릉포교당 관음사 창건 100주년 기념 봉축법회가 12일 포교당 극락전에서 개최됐다.

1922년 강릉시 금학동에서 포교활동을 위해 창건한 관음사는 통도사·마산포교당, 용주사·수원포교당과 함께 한국 불교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3대 도심 포교당으로 우뚝섰다.

이날 관음사는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 100년을 다시 준비하며 웅비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제4교구장 퇴우 정념(월정사 주지), 무주 관음사 주지,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고광록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장, 권기혁 관음사 신도회장, 김남철 관음사 창건 100주년 추진위원장, 손재영 강릉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길상 강릉 불교신도 연합회장 등 비롯한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신도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는 관음사 100년의 역사를 담은 기념 책 발간식과 기념 세미나, 시상, 축하 공연을 열며 자축했다.

퇴우정념 교구장은 “미래 100년의 관음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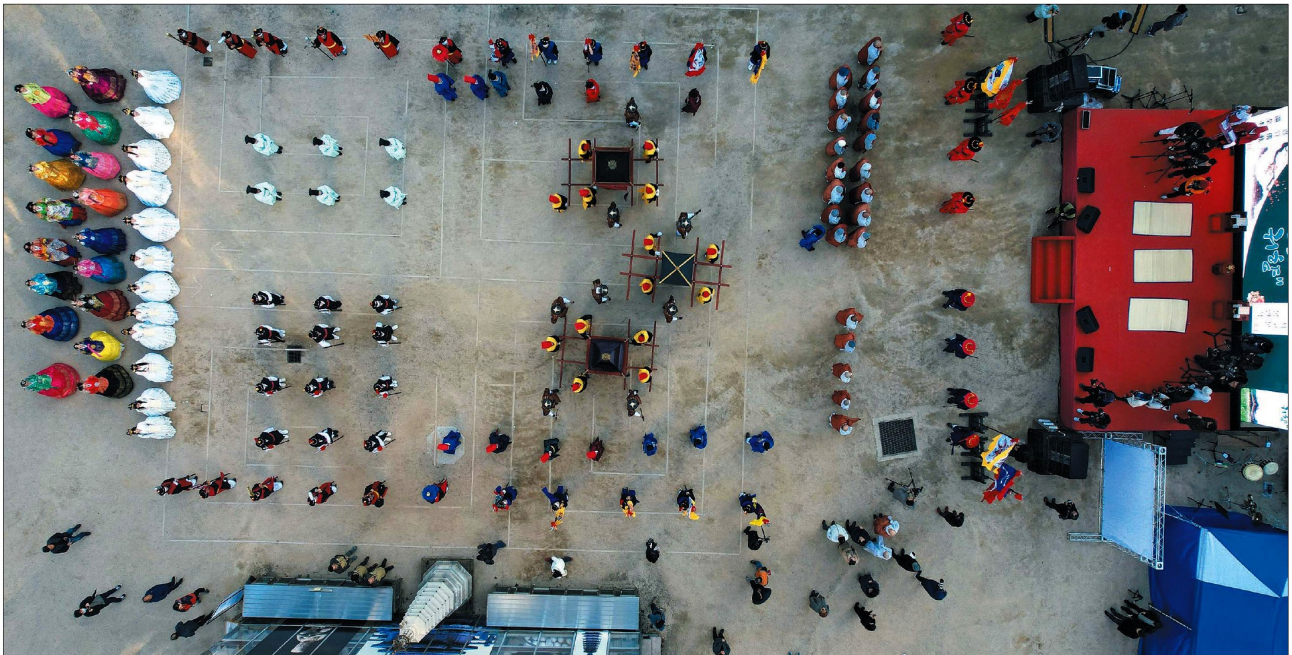
이진규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포토뉴스 03면

오대산 품에 안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오대산사고본 이운 행렬 재연 오대산사고가 건립된 1606년 당시 한양에서부터 이어진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평창 이운행렬을 맞이하는 광경이 417년 만에 재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일 봉안사와 군수, 취타대 등으로 구성된 이운행렬이 월정사 경내에 도착해 봉안식을 위해 도열하고 있다.



월정사를 향해 지난 10일 오대산사고본 이운행렬 재연행사에서 봉안사와 군수, 의장대, 유생, 호위군, 취타대가 동행한 행렬이 봉안식을 위해 월정사로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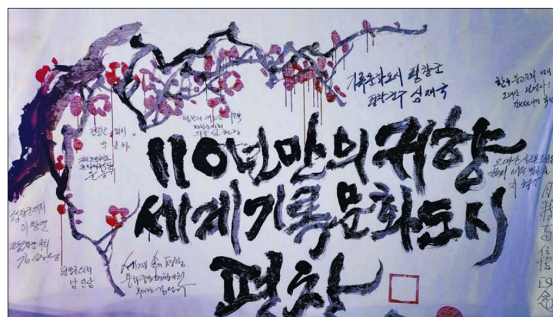
환수고유제 봉헌 초한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한관 심재국 평창군수, 종한관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체(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를 알렸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이 지난 11일 평창 월정사 일원에 위치한 박물관 내에서 최용현 문화재청장, 뒤우 장년 월정사 주지스님, 김진태 지사, 이철규·유상범·이재익·배한진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심현정 평창군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왕조실록을 들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이운행렬 재연행사가 지난 10일 월정사에서 열려 행렬에 참여한 한 복모델단이 조선실록 모형을 들고 의궤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기록문화도시 평창군 지난 10일 평창군 월정사 경내에서 열린 세계기록문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남긴 기념 메시지.



전시 해설 듣는 내빈들 지난 11일 평창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전시 해설을 듣고 있다.

사진=박승선·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지역 11면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강릉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 제41회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과 11일 남대천 둔치(단오제문화관 앞)에서 김홍규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장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농업인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년 11월 13일 (월)

지역 12면

江原日報

오색케이블카 성공 염원 안고 걸었다

양양 산소길 걷기 행사

본보·양양군산악연맹 주관
착공 축하하며 플로킹 병행

【양양】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기념하는 '2023 양양군 산소길 걷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케이블카 착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염원했다.

12일 서면 오색리 주전골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케이블카 착공식을 앞두고 쓰레기 줍기(플로킹)도 병행,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색 주전골 입구는 오색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에서 1km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강원일보사와 양양군산악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양양군과 양양군체육회가 후원한 2023



◇2023 양양 산소길 걷기 행사가 12일 오색리 주전골에서 열려 오는 20일 예정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염원했다.

양양 산소(O₂)길 걷기행사는 오색약수터 길목인 주전교 주차장에서 간단한 개회식 후 진행됐다.

올 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던 추위 속에서도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및

군의원, 진종호 도의원, 김연식 양양군체육회장을 비롯해 300여명이 함께했다.

김진하 군수는 인사말에서 “강원일보사와 양양군산악연맹이 함께 주관한 오늘 산소길 걷기 행사가 오색케이블카 성

공적 설치에 더욱 힘을 보탬 것”이라고 했다.

오세만 양양군의장은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은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부지에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이양수 국회의원과 도 출신 국회의원 등도 참석한다. 시공사 선정 및 본공사 착공은 내년 2~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호기자 hokuy1@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3년 11월 12일 (일)

정치

'김진태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진행

정찬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지난 7월 24일, 강원도립대 산학력단세미나실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개청 현판식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 개청 100일을 맞아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를 13일 오후 3시, 강원도립대 창의혁신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한다. 제2청사 모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연소개 및 밸런스 게임, 키워드(고민파쇄)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이 날 토크콘서트는 그간 제2청사에서 원들이 근무하면서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현장 참여와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병행함으로써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소통·공감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제2청사가 강원도와 영동지역간의 교두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들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2일 (일)

지역

제60회 원주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기영



▲ 제60회 원주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최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강수 시장, 박정하·송기현 국회의원,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김인식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장,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60회 원주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최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원강수 시장, 박정하·송기현 국회의원,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김인식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장,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mod1600@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3면

도의회 “디피코 미지급 인건비 40억원 우선 지급” 촉구

산업국 행감서 퇴직자 급여 연급
반도체 임시교육센터 혼선 지적
드론택시 투자금 환수상황 점검



박윤미 진종호 김기홍

강원도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문을 연 반도체 임시교육센터가 이전을 검토하는 등 사업 초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1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부분을 따져물었다.

도는 지난 3월 원주문막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임시개소했다. 오는 2026년 원주학생동 교육센터가 정식 개소할 때까지 교육장비를 문막의 임시 공간에 배치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시센터 내 구축장비 이전비용이 9억 4800만원이 소요된다.

박 의원은 “(강원도 목표치인) 연 3000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2026년 완공이 됐을 때 가능하고, 3년 동안 센터는 효율이 없는 데 올 3월부터 교육센터 건립이 된 것처럼 했다”며 “교육생을 만들 수도 없고, 장비가 들어올 수도 없다. 임시센터도 협소해서 제구실을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희생절차를 밟고 있는 횡성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가 미지급한 인건비는 40억원 수준으로, 지난 1월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직원들이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일을 다시 하려는 분들은 퇴직을 못하고 (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업)급여도 못받고 있다”고 인건비 우선 지급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디피코 인력 167명 중 139명이 퇴사를 했다.

남 국장은 “퇴직자 대상으로 전기차 정기교육을 8월부터 시키고 있다”며 “정상 회생되면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금 환수는 환수 가능액 집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날 김기홍(원주) 의원은 시제기 개발 총괄 업체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 투자금 100억원 환수 진행 상황을 물었고, 남 국장은 “현금 8200만원

이 가압류 조치되었고, 판결에 따라 채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얼마를 받아낼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비 반환 청구는 강원도와 TIE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오는 15일 춘천지방법원 제3차 심리가 예정되었다. 이설 화 loli@kado.net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6면

“디피코 인건비 40억 조속히 지급해야”

〈횡성 전기차 제조업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

희생절차를 밟고 있는 횡성의 전기차 제조업체 ‘디피코’의 인건비 미지급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원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10일 도 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관련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으면서 지역에 경제적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진우 산업국장은 “1월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인건비 미지급금이 40억원 정도이고, 167명 중 139명이 퇴사했다”며 “(디피코)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다. 12월 26일쯤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 기업이 정해지고 희망하는 대로 된다면 내년 1~2월 업체가 인수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도 글로벌본부 감사에서 문관현(태백) 의원은 “통근버스와 직원관사 비용으로 연간 20억원 소요 예정인데, 인력 증원시 예산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3년 11월 12일 (일)

강원도민일보

정치

반도체 임시 교육센터 이전 하나...강원 반도체 사업 초부터 "우왕좌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10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박윤미(원주) 의원이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1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 양성 부분을 따져물었다. [도의회 인터넷 중계화면 캡처]

강원도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문을 연 반도체 임시 교육센터가 이전을 검토하는 등 사업 초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반도체 교육장비를 임시 센터에서 정식 센터로 이전하는 데만 1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매몰비용'을 안고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지난 10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1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 양성 부분을 따져물었다. 도는 지난 3월 원주 문막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임시 개소했다. 오는 2026년 원주 학성동 교육센터가 정식 개소할 때까지 교육장비를 문막의 임시 공간에 배치해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시센터 내 구축장비 이전비용이 9억4800만원이 소요된다.

박 의원이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임시공간에 200억원 (장비를) 투자해서 넣었다가, 학성동에 (정식 센터가) 건립되면 다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묻자,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내년에 임시시설에 (교육장비가) 다 들어올 수 없다"며 "단계별로 장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센터 운영에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인정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시공간(문막)이 좁다"며 "그 공간도 사실은 이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임시센터 자체의 이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강원도 목표치인)연 3000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2026년 완공이 됐을 때나 가능하고, 3년 동안 센터는 효용이 없는데 올 3월부터 교육센터 건립이 된 것처럼 했다"며 "교육생을 만들 수도 없고, 장비가 들어올 수도 없다. 임시센터도 협소해서 제구실을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횡성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가 미지급한 인건비는 40억원 수준으로, 지난 1월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직원들이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일을 다시 하려는 분들은 퇴직을 못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있다"고 인건비 우선 지급을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디피코 인력 167명 중 139명이 퇴사를 했다.

남 국장은 "퇴직자 대상으로 전기차 정기교육을 8월부터 시키고 있다"며 "정상 회생되면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투자금 환수는 환수 가능액 집계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날 김기홍(원주) 의원은 시제기 개발 총괄 업체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 투자금 100억원 환수 진행 상황을 물었고, 남 국장은 "현금 8200만원이 가압류 조치돼있고, 판결에 따라 채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얼마를 받아낼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비 반환 청구는 강원도와 TIE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오는 15일 춘천지방법원 제3차 심리가 예정돼있다. 이설화

MBC 강원영동

2023년 11월 10일 (금)

강원

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항~러시아 카페리 출항시간 변경해야"

조규한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만6천톤급 카페리가 오는 20일 취항할 예정인 가운데 출항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어제(9) 강원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카페리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에 속초항으로 들어와 당일 오후 6시에 떠난다며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류형 관광을 위해 카페리 출항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의 사정을 고려해 출항 시간을 결정했으나, 앞으로 관광객들이 속초에서 숙박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은 MBC강원영동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감/연/속 뉴시스
NEWSIS

2023년 11월 10일 (금)

사회

강정호 도의원 ‘속초~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 출항시간 변경’ 제시

현재 러시아의 사정으로 인해 출항시간이 오후 6시로 결정.



사진은 속초항, 오리엔탈 펄 6호 모습. 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이 속초~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 출항시간 변경을 제시했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9일 해양수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운항횟수와 출항시간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2회, 9시에 속초로 입항을 하고,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출항하면,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입항과 출항이 당일에 이뤄져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해양수산정책관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의 사정으로 인해 출항시간이 오후 6시로 결정은 되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광객들이 속초에서 숙박하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변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1만6천t급 카페리 ‘오리엔탈 펄 6호’가 3차례 시범 운항을 거쳐 오는 20일 정식 취항해 운항할 예정이다.

프레스뉴스, 신한뉴스 등 36개 언론사 보도

춘천MBC

2023년 11월 12일 (일)

강원

강원 119 안전센터 77곳 중 46곳 급식시설 없어

강원도 119 안전센터의 절반 이상이

급식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숙희 의원은 강원도 119 안전센터

77곳 가운데 46곳에 급식 시설이 없다며

전국 각 시도에 급식시설이 없는

안전센터가 10곳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소방본부는

내년 예산에 급식 용역비 추가 배정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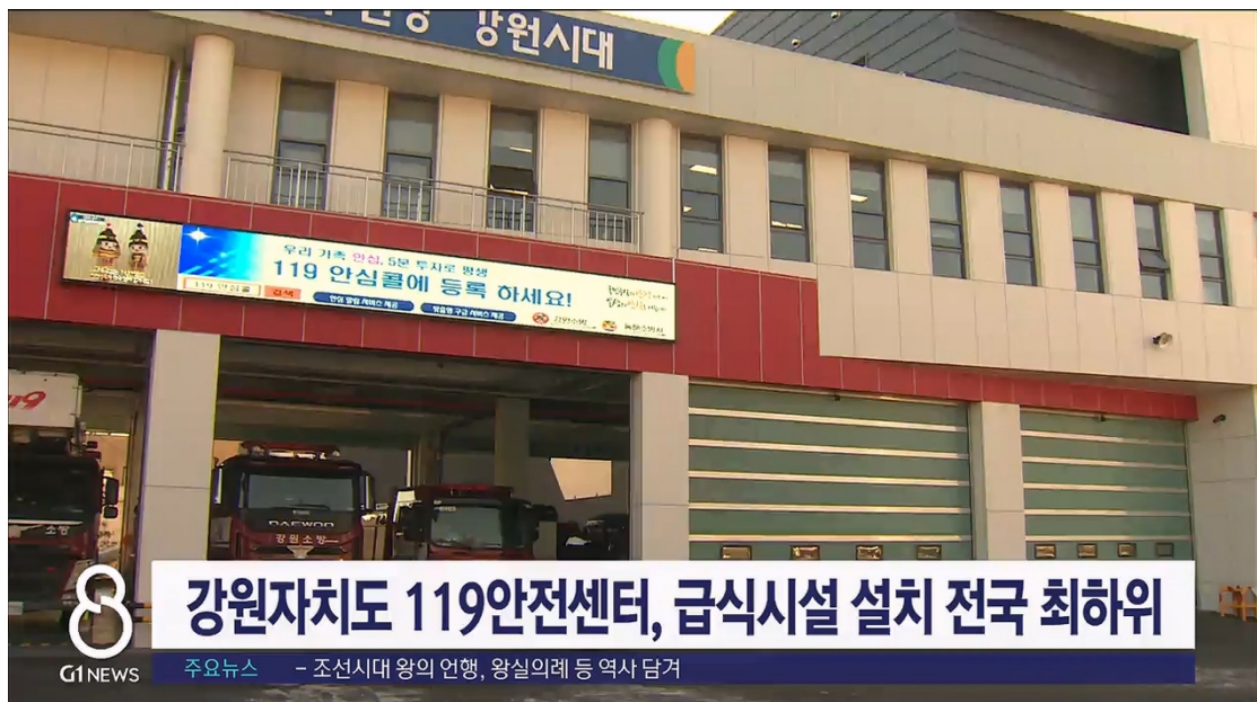
2023년 11월 11일 (토)

G1방송

강원

강원자치도 119안전센터, 급식시설 설치 전국 최하위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강원자치도 내 119안전센터 급식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자치도의회 양숙희 도의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내 119안전센터 77개소 중 급식시설이 미운영되는 곳은 46곳으로,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양숙희 도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10개 시.도는 급식시설을 모두 운영중이며, 나머지 시.도의 경우 미운영 지역이 10곳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자치도 소방본부는 "내년 예산에 급식용역비 추가 배정을 요청했지만 어려운 세수상황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없는' 강원 119안전센터 수두룩...대책 마련 촉구

양숙희 도의원 "77곳 중 46곳 없어...전국 최하위 수준" 지적



양숙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의힘 양숙희(춘천6)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은 10일 강원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안전센터 급식시설 설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도내 119안전센터 77곳 중 급식시설이 없는 곳은 46곳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경북 등 10개 시도에서는 급식실이 모두 운영 중이고, 나머지 6개 시도에서도 미운영 센터가 10곳 미만"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도중 발생하는 긴급상황으로 인해 출동 뒤 돌아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라거나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에 규정돼있다.

이들 법령은 소방복지시설로서 매점, 식당, 주유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장은 "내년 예산에 급식용역비 추가 배정을 요청했지만, 어려운 세수 상황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해 앞으로 추경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점차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급식실 확충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conanys@yna.co.kr

엔사이드, 누리일보 등 39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6면



자치도의회, 도 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가 지난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산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인물 23면

최재석 의원, 책읽는 의원 대상 수상

최재석(국민의힘·동해·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제3회 대한민국 책읽는 의원 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평소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최 의원은 "독서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지역 10면



다문화인식개선콘테스트 그림공모전 시상식 (사)홍천다문화가정후원회와 홍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0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군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이광재 군의원, 한종원 강원일보 홍천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4회 다문화인식개선콘테스트 아동·청소년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내년 강원도 예산 역대 최저 증가폭...자체 사업 20% 이상 감소

앵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강원도의 내년 예산 증가 폭이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지방도 건설 등 여러 사업의 축소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7조 5,800억 원.

올해보다 0.8% 느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10%를 넘나들었던 증가 폭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한수/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당초 예산에 채무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증가한 정부 보조금 4,100억 원을 빼면, 사실상 내년 예산은 줄어든 셈입니다.

강원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자체사업이 문젭니다.

전체 사업비가 20% 이상 줄게 됩니다.

SOC 가운데서는 직접 길을 닦거나 보수하는 지방도 사업의 경우, 400억 원 감소합니다.

농업 분야 사업비나 시군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도 적지 않게 줄어들게 됩니다.

각종 사업과 시책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용역도 200억 원가량 감축합니다.

도청 신청사를 짓기 위해 모으는 기금 1,000억 원도 내년에는 적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2,300억 원을 투자하고, 복지 등 민생예산을 챙겼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은 부족해 예산 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무철/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도지사가 하려는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인지는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강원도 예산안은 다음 달(12월) 4일부터 열흘 동안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 15일, 본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

2023년 11월 12일 (일)

江原日報

사회

[포토뉴스] 제28회 강원초등교원체육대회 개최



강원초등체육연구회(회장:허남진)는 지난 11일 삼척스포츠타운 '제28회 강원초등교원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신경호 도교육감 및 각 시·군교육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심영곤·조성운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11월 12일 (일)

江原日報

사회

[포토뉴스] 춘천시펜싱협회, 펜싱체험행사 개최



춘천시펜싱협회(회장:김선희)는 지난 11일 강원체육중고 펜싱 체육관에서 '펜싱체험행사 및 동호회 창단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김두경 도펜싱협회장, 양숙희 도의원, 정경옥·김영배·배숙경·남숙희 춘천시의원, 조호순 도경제진흥원 본부장, 윤형석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년 11월 12일 (일)

江原日報

사회

[포토뉴스] 화천 DMZ배 민.군.관 축구대회



2023 화천 DMZ배 민군관 축구대회가 지난 11일 사내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년 11월 12일 (일)

강원도민일보

스포츠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회식

심예섭



▲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이 지난 11일 삼척실내체육관에서 이범연 도 보건체육특보, 양희구 도체육회장, 박상수 삼척시장, 조성운·심영곤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회식이 지난 11일 삼척실내체육관에서 이범연 도 보건체육특보, 양희구 도체육회장, 박상수 삼척시장, 조성운·심영곤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심예섭 yess@kado.net

yes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오피니언 19면

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인가

의정칼럼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와 노인부부 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돌봄 기능은 저하되고 있다.

강원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미 2020년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며, 2022년 강원도 1인 가구는 총 25.4만 가구로, 9개의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생애주기별,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시설에 의존한 돌봄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죽이란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받았고, 극단적인 경우, 간병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다. 간병과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으며 자라났고, 돌봄을 받으며 나이 들어간다. 욕구의 보편성을 고려했을 때 돌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다. 돌봄은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고 절박하게 소환됐으나, 그 과정에서 돌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이 오히려 드러났다.

필자는 강원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민의 돌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인가? 첫째,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강원지역의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돌봄 수요자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체험한다.

둘째,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돌봄 서비스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 시책만 따라 시행하는 수준으로는 강원형 돌봄체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돌봄의 특성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매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기존의 병원·시설 중심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적, 소득재산 기준에 의한 돌봄에서 도민 중심의 통합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강원도정은 지역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통합돌봄에 대한 수용 태세 개선이 시급하다. 강원형 통합돌봄 행정조직 체계 준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성과 통합성, 보충성을 반영한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은 달라져야 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원형 돌봄체계는 '통합돌봄'이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조금 더 변화된 행정조직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2일 (일)

지역

정선여중·고동문화 '동문의 밤' 행사

유주현



▲ 정선여중·고동문화(회장 최선화)는 지난 11일 정선농협 한우타운 2층 회의실에서 강선구 부군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전영기 군의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여자중고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정선여중·고동문화(회장 최선화)는 지난 11일 정선농협 한우타운 2층 회의실에서 강선구 부군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전영기 군의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여자중고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joohyun@kado.net

江原日報

2023년 11월 12일 (일)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엄윤순(인제) 농림수산부위원장, 강정호(속초).박호균(강릉).윤길로(영월).전찬성(원주).최종수(평창).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3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소양홀에서 열리는 202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시상식에 참석.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1면

江原日報

조선왕조실록·의궤 선양사업 통해 '새 역사' 쓴다

〈오대산사고본〉

"110년만의 귀향"

▶관련기사 2·3·15·21·22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돌아왔음을 하늘의 신과 토지의 신인 ‘후토지신(后土之神)’께 삼가 고합니다.”

우리 소중한 문화재의 110년에 걸친 귀향(歸鄉)을 알리고 기념하는 환지본처(還至本處,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오전 오대산사고에서 장엄하게 봉행된 ‘환수고유제’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평창지역 유림들이 집전한 환수고유제는 헌관과 제관이 제자리를 찾는 취위를 시작으로, 초헌관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아헌관인 삼재국 평창군수, 종헌관인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 국궁사배(鞠躬四拜)의 예를 갖추며 실록과 의궤가 고향 땅에 당도했음을 알렸다. 이어 향을 올리는 전폐례와 함께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작헌례, 축문을 태우는 망료례 등이 진행됐고, 의궤의 종료를 알리는 예필(禮畢)을 끝으로 이날 환수고유제는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9일, 417년 전 그날처럼 조

3일간의 ‘환지본처’ 기념행사

봉안 행렬 등 명장면 남기고

‘환수고유제’와 함께 막 내려

토론회 열고 활용 방안 찾아

선왕조실록과 의궤가 평창군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는 과정을 재연한 ‘평창군 보관식’과 함께 시작된 사흘간의 기념행사는 110년 전 일제가 아하레에 걸쳐 자행한 악탈의 과정을 상세할 만큼의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연출해 냈다.

지난 9일 평창군청 일원에서 열린 ‘평창군 보관식’은 오대산사고가 건립된 1606년 실록과 의궤를 운반하는 봉안사의 행렬이 평창에 도착했을 때 평창군민이 느꼈을 당시의 감동을 2023년에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취타대와 농악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이어 지난 10일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의 수호사찰인 월정사까지 실록과 의궤를 안전하게 옮기고 봉안하는 과정을 보여준 ‘이운행렬 퍼포먼스’는 제2의 오대산사고라 할 수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의 만남, 수호총섭인 퇴우 정념 주지스님의 이운행렬 맞이

등 숭한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이어진 기록문화도시 선포식은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향후 선양사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보여준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환수고유제에 이어 열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개관식은 지난(至難)했던 환지본처

운동의 마중표를 찍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오후 대법륜전에서 열린 ‘실록·의궤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는 활용의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110년 만의 귀향을 감개무량하게 환영한다.

평창군민과 강원도민, 불교계를 비롯한 함께한 많은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성장시키는 역사회복의 정신이자 지역의 염원의 결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sgto@kwnews.co.kr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1면

江原日報



월정사 돌아온 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110년 만에 고향인 평창으로 돌아왔다. 지난 10일 평창군 월정사에서 퇴우 정념 주지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대산사고본 봉안식이 거행되고 있다. 평창=신세희기자

2023년 11월 13일 (월)

문화 02면

江原日報

110년만에 집으로 “다함께 이뤄낸 기적” 환희로 뜨거운 평창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이운행렬 110년만에 집으로 돌아온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이운행렬 재연행사가 지난 10일 평창군 월정사에서 열려 봉안사와 군수, 취타대 등으로 구성된 이운행렬이 봉안식을 위해 월정사 경내로 향하고 있다.

평창=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환지본처’ 사흘간의 드라마

1606년(선조 39년) 오대산사고 건립과 함께, 그곳에 보관할 실록과 의궤를 싣고 걸었음 봉안사 행렬의 발자취를 따르던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의 여정은 드라마 그 자체였다. 후대에 기록될 새로운 역사를 만들며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눈물 나게 만들었던 지난 사흘간의 흔적들을 되돌아본다.

◇평창 보관식 재연행사(9일·평창군청 일원)=1606년 한양 춘추관을 떠나 새롭게 건립된 오대산사고에 실록·의궤를 옮기기 위한 봉안행렬 재연행사는 평창군청 앞에서 진행된 봉안사(심원정 평창군의회장)와 삼재국 평창군수의 역사적인 조우가 눈길을 끌었다. 체여(彩輦)에 실려 먼 길 돌아온 실록과 의궤는 궤(櫃)

417년만의 보관식 재연행사 군민 1,000여명 감격 나눠 이운행렬·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토론회 등 인파 몰려

에 담기고 봉안된 채 제단 위에 모셔졌다. 이어 군수와 봉안사 등은 국궁 사배와 삼기도 등 전통방식에 따른 제례의식을 통해 오대산사고본 실록과 의궤가 평창 땅을 밟았음을 만방에 고했고, 행사장을 찾은 1,000여명의 주민은 417년 전 그날처럼 박수와 환호로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운행렬 퍼포먼스(10일·오대산문-전나무숲길-월정사 구간)=전날 평창군청에서 머문 봉안사 행렬은 발걸음을 재촉해 ‘오대성산’을 현판으로 한 오대산문 앞에 다다른다. 전열을 정비한 이들은 실록과 의궤를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과 함께 합류한 뒤 환지본처 켄

페인 구호인 ‘집으로’를 외치며 오색측포 속에 월정사로 향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실록과 의궤 모형을 손에 든 22명의 참가자가 더해져 행렬의 길이는 130m에 달했다. 전나무 숲길을 지난 행렬은 금강루 앞에 기다리던 최우 정남 주지스님을 만나 실록과 의궤의 귀환을 알렸고, 정남 스님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지켜가겠다”는 말로 맞이했다.

◇기록문화도시 선포식(10일·월정사 특설무대)=이운행렬은 월정사 경내까지 진입한 후 이내 특설무대에서 멈춰섰다. 이들은 보관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향과 실록·의궤를 담은 궤를 제단에 올리고 예를 갖추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김정호 작가가 ‘110년만의 귀향’이라는 환지본처 기념 행사 전체 슬로건을 그리는 캘리그라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어 월정사 한주 해안 스님이 오대오만보살축원에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수년째 환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수 임지훈씨가 축하 공연에 나서 기록문화도시 선포를 축하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

식(11일·박물관)=하늘과 땅의 신에게 실록과 의궤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환수고유제가 오대산사고에서 이날 오전 마무리 된데 이어, 오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주관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이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국악양상을 SIA M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개관식은 환지본처에 앞장선 이채익,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역사적인 개관 선포 세리머니가 펼쳐졌다. 최웅권 문화재청장은 “개관을 계기로 우리의 유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록·의궤 활용방안 토론회(11일·월정사 대법륜전)=환지본처 기념행사를 정리하며 실록과 의궤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토론회에서는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를 활용한 축제화 방안 △VR, AR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방안 △실록·의궤 문화콘텐츠화 전략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상보 14일자

이날 토론회는 ‘202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륜발전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평창=오석가·김민희·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1면

내년도 강원도 예산 7조5862억원 편성

올해보다 630억원 0.8% 증가 그쳐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본예산이 7조 586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7조 5232억원)보다 630억원(0.8%)이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김한수강원도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강원도 당초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6조 7975억원으로 전년보다 555억원이, 특별회계는 7887억원으로 전년보다 75억원이 각각 늘었다. 도는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 2024년도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2092억원 줄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도는 전 분야 사업을 감축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산업

과 복지 분야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소·미래차 등에 총 2364억원(도비 947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적약자 등 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보다 6.4%(1818억원)을 증액, 도정 사상 처음으로 '복지 3조원 시대'를 열게 될 전망이다. 김덕형

▶관련기사 2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2면

강원형 첨단산업 육성 방점...복지비 사상 첫 3조원 돌파

내년 도 본예산 어떻게 짜여졌나

반도체 생태계 구축 29억원

정밀의료 등 바이오 집중 투자

복지분야 올해 대비 6.4% 증액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본예산은 강원 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또,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4%(1818억원) 증액한 3조7000억원으로 각 예산안이 최종 결정되면 도정 사상 첫 '복지 3조원 시대'를 열게 될 전망이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 등 민선8기 집진태도정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강원형 첨단산업과 관련해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비 최대 확보와 도비 매칭을 통해 강원도 첨단산업 지도를 새롭게 짜겠다는 전략이다. 강원형 첨단산업 추진의 핵심은 반도체다. 원

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김 지사의 주요공약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협력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협약을 통해 첫발을 댄 상태다.

이와 연계해 도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도비 29억원을 투입한다.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를 차질없이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밀 의료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대표 사업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국비 20억원·도비 13억5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사업과도 연계된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국비 18억7000만원·도비 20억7000만원) 역시 주요사업으로 홍천군과 강릉시, 춘천시를 아우르는 강원 바이오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펀드 속에 강원 재정 공간도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다. 그러나 도는 사회적약자 복지확충에 대해선 예산 전면 투입 기조를 세웠다. 내년 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4%(1818억원) 늘어난 3조7000억원 규모다. 내년 생계 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4000원 오른다. 노인일자리수당은 월 2만원 인상되고, 부모급여는 연령별로 만0세 70만원→100만원, 만1세 35만원→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밖에 도로와 교통망 확충 1655억원, 도시재생 활성화에 1186억원, 접

경지역 활성화에 89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연내 착공이 가시화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을 줄였지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라며 "서민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을 확대,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재정 여건 호전 시 재무조기상환 이행과 재정 준칙 준수를 확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종합 04면

강원 치안센터 62% 축소 "지구대 가려면 버스로 1시간"

외곽 30곳 폐지 치안공백 우려

센터-관할 지구대 최대 22km

"치안수요·거리 무시 졸속 결정"

속보=경찰이 최근 조직개편을 위해 도심 외곽의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하면서 강원도내 치안센터 30곳이 폐지로 가닥(본지 11월 3일자 4면)이 잡혔는데, 폐지가 되는 치안센터의 주민들은 최대 22km는 더 가야 경찰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라지는 치안센터-관할지구대 파출소 거리

치안센터	관할지구대·파출소	거리
평창 운교치안센터	평창지구대	22km
영월 상동치안센터	중동파출소	21km
삼척 가곡치안센터	원덕파출소	18km
원주 신림치안센터	치악지구대	17km
춘천 동산면치안센터	남부지구대	17km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상주인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 치안센터 30곳을 폐지한다. 강원도내 치안센터 48곳 중 62.5%가 없

어지는 셈이다. 경찰은 각 치안센터 폐지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및 기획재정부 반납을 오는 12월 내로 마치고, 폐지 대상 치안센터 근무자 재배치를 내년 상반기 인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가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각 관할 지구대·파출소와의 거리를 따져보니 최대 22km, 즉 차로 25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안센터가 위치한 곳이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승용차가 없는 고령의 주민들의 경우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하

는 상황이다.

강원도내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각 관할 지구대·파출소간의 평균 거리는 11.2km다. 가장 거리가 먼 곳은 22km가 떨어진 평창 운교치안센터와 평창 지구대다. 그 다음은 영월 상동치안센터와 중동파출소의 거리 21km, 삼척 가곡치안센터 18km, 원주 신림치안센터 17km, 춘천 동산면치안센터 17km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 내부에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폐지로 가닥이 잡힌 춘천 동산면 정명

구 이장협의회장은 "최근 관련 소식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은 걱정이 커 다음 달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며 "절도나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치안센터가 있으니 도움을 받았는데 먼 외곽지역까지 춘천 시내에서 오려면 그 시간 차이가 상당하지 않겠냐"고 했다. 강원도내 경찰 관계자 역시 "경찰청이 요구하는 개수 맞추기에 급급해 각 지구대와 치안센터간의 치안 수요나 거리 등을 따지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지역 09면

춘천시 내년 축제 예산 '썩둑' 문화계 한숨

조각축제 등 당초안 미반영
인형·연극·마임축제 줄삭감
시 "관련예산 추경 반영 최선"

건축재정을 예고한 춘천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문화·예술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1조 6270억원으로 잠정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억 5959억원) 대비 2% 가량 소폭 증액한 규모다. 그동안 춘천시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액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됐고 정부 건축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올해

는 2% 상승에 그쳤다. 춘천시는 올해 정부 교부세 974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강원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도 80억원 가량 결손이 발생하면서 공간 걸어 잠그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감액된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통해 대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각 부서에 내년도 사업비를 최대 20%씩 감액할 것을 주문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축제나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다 보니 운영비나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삭감으로 가닥이 잡혔다. 춘천시는 춘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지난해 228억원에서 204억원으로 10% 가

량 줄였다. 그러나 이 중 재단 운영비나 인건비는 고정적인 지출이다 보니 삭감된 20여억원을 각종 행사성 프로그램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춘천조각축제나 춘천오페라페스티벌, 버스킹 콘서트 등의 신생 축제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춘천 3대 축제인 마임축제·인형극제·연극제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인형극제는 5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고 마임축제의 경우 올해 6억 3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 삭감, 연극제도 2억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줄어 편성됐다.

지역 문화계는 비상이다. 강원규마임축제 총감독은 "마임축제는 정

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로 다른 지자체 축제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임축제가 축소된다면 단지 프로그램 하나를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다. 축제 위상도 훼손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오는 2025년 유니마총회를 앞둔 인형극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홍웅민 인형극제 사무국장은 "내년 행사는 유니마총회를 1년 앞둔 리허설 형태로 진행해야 해 더욱 예산 사수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저비용 고효율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당초에 미반영된 축제들은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사회 05면

열흘 전 낮 기온 29도 찍은 강릉, 기습 추위에 첫 얼음 '꽝꽝'

최근 비 탓 '11월 더위' 기세 꺾여
철원 일대 수확 못한 배추 냉해도
도내 스키장 손님맞이 채비 나서

강원도 전역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불과 열흘 전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강릉에서도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추위는 강릉과 속초, 동해 등 영동지역이 11월 최저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지 불과 열흘만에 찾아왔다. 지난 2일 오전 6시 기준 강릉 20도, 대관령 13.6도, 동해 16.8도, 속초 17.5도, 인제 18.3도 등으로 역대 가장 높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에도 따뜻한 날씨는 이어져 강릉의 낮 최고 기

온이 29.1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11월 첫주가 역대급으로 따뜻했던 이유는 최근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근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반도 곳곳에 비가 내려 더위의 기세가 꺾이면서 갑작스럽게 영하권의 날씨가 찾아온 것이다. 따뜻하다 못해 더웠던 이달 초 날씨를 겪었던 터라 이번 추위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추운 날씨로 북강릉에서는 올해 첫 얼음이 관측, 이는 지난해 첫 얼음 관측 일인 11월 5일보다는 7일 늦었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다. 또 철원 일대의 농업용 저수지와 수확 끝난 논에는 물이 꽝 얼어붙고 미처 수확하지 못한 배추와 채소들이 냉해를 입기도 했다.

강원도내 전역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등산객들은 두터운 옷을 챙겨

입고 도내 명산을 찾았다. 설악산은 12일 오후 4시 기준 6088명이, 지난 11일은 1만 544명이 찾는 등 추운 가을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스키장은 겨울맞이 준비에 나섰다. 모나윙 스키장은 지난 10일부터 제설기 100대를 투입해 눈을 만들고 있으며, 휘닉스 평창 스키우파코지 11일부터 제설기를 가동해 인공눈을 뿌리고 있다. 모나윙 스키장과 휘닉스파크 스키장은 오는 24일 개장하는 등 강원도내 다른 스키장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전망이다.

윙평 스키장 관계자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개장해 스키시즌을 기다려 온 고객들이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이재용·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사설/칼럼 19면

첨단기술 분야 비중 확대 시급

-강원 사업체 첨단분야미약,동력 확보해야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생명 공학, 우주 항공, 신소재, 정보 통신 관련 기업이 기술 개발에 주력합니다. 지역별 경쟁도 치열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도 첨단산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업의 발전 속도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양적·질적 규모를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강원지역 첨단 산업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도내 사업체 100곳 중 첨단기술 분야는 평균 3곳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 강원지역 총사업체 1만 6828곳 중 첨단기술 분야는 472곳으로 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창의 및 디지털 분야도 541곳 3.2%입니다. 고기술,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분야 산업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중기술, 전문 서비스 등 저기술, 전

문서비스 업종의 집적도가 높아 미래형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득 경쟁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낮은 강원지역의 경우 강원지역 1인당 지역총소득(GRDP)은 2019년 2939만 7000원에서 2020년 2889만 1000원으로 1.7% 감소했고, 2021년엔 3107만 4000원으로 7.5%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창의 및 디지털, ICT 등의 집적도가 높은 서울은 총소득에서도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경제성장을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 내 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비즈니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수도권 집중 첨단산업이 최근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주도권을 타지역에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 지자체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3일 (월)

사설/칼럼 19면

내년 예산 주민욕구 부응 따져야

-도의회 전문적 심의로 지출배분 및 수입 다변화살피길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630억원 증가한 7조5862억원으로 편성돼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도는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육성과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증액률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첫 3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실상 다양한 분야에 투입해야 할 실질 사업예산은 감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는 예산 심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긴축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과다 편성된 것은 없는지, 지역 특색과는 거리가 멀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국고 및 지방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야 합니다. 반대로 육성해야 할 특화사업이 재원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내년은 예산을 반영한 특별자치제 첫해인 만큼 특별자치체제를 강화하는 이 분야 예산이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적인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합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을 대리해 심의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예산심의에 따른 기본전략 및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충분히 심의해

야 합니다. 자칫 의회에서 지역이기주의나 당파성, 정략적인 요인으로 잦대가 움직여선 안 됩니다. 삭감 예산을 예비비에 편입한 후 지역구를 의식한 일반재원으로 쓴다든지 하는 편법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산수입 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도 지방세 수입을 줄여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증액했다고는 하나 0.8%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인천시와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각각 8.1%, 6.9% 증액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다른 아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과 같은 지방세외 수입 증가율이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무려 42%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세외 수입으로 확보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도에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체납액 징수 방법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입 구조 다변화를 향해 몸부림치는 이유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격감의 부정적 여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는 수입 부문에 대해 적극 따져 개선점을 내놓아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사설/칼럼 19면

내년 총선 선거구 조기 확정, 유권자 판단 도와야

내년 4·10 총선 선거구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조기 확정돼야 한다. 내년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12일이다. 국회의 선거구 확정기 기약 없이 미뤄져 총선을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인지도 면에서 현역 국회의원보다 불리한 데다 선거구 확정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손 놓고 있기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은 각 지역의 참예한 이해와 갈등을 논리·타당적이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한 틀을 바탕으로 치러져야 하는 것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기본 정신이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반복돼 왔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구 확정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전국을 고르게 분할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회는 손 놓고 있다. 국회는 선거가 코앞까지 닥치면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구를 불쑥 내놓기 일쑤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선거구는 가관이다. 20대 총선에서는 5개 시·군이 한 선거구가 된 공룡선거구 2곳이 나왔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면적(5,697㎢)은 서울의

10배, 최소 면적 선거구인 서울 동대문구의 948배에 달했다. ‘대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는 군청 소재지만 도는 데 6시간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투표 당일까지 후보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유권자가 태반이었다. 21대 총선에는 명칭만 있고 유권자는 단 1명도 없는 선거구까지 등장했다. 바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 중 갑 선거구다. 분구 대상이었던 춘천은 남북으로 나뉘어 강북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와 합쳐져 을 선거구가 됐다. 때문에 춘천 강남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는 하나도 없는데 명칭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다. 철원, 화천, 양구 유권자가 보면 유령 선거구나 마찬가지다.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는 난제를 던지고 인구편차를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충족도록 하는 등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향점이 다른 지역이 같은 선거구로 묶이면 응집력이 약화된다. 이는 지역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당과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3일 (월)

사설/칼럼 19면

내년 국비 확보, 국회 통과까지 최선 다해야 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에서 분과별로 심사를 마친 뒤 예산의 총 세출과 세입을 일치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국민의힘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다. 소수 의원만 참여할 수 있어 정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뽑힌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예산안 조정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분과별 심의 결과를 모아 내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 따지는 절차다. 이 과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

도는 지난 9일 예결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예산소위 민주당 허영 의원을 찾아 주요 사업 및 누락 사업의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또 황순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과도 면담했다. 현재 도가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43억원),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15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480억원 증액)

등이다. 이외에도 20여개의 주요 핵심 사업은 추가 증액 및 감액 방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내년 국비 9조5,000억원을 따냈지만 국회 심의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예산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12월1일 자동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이번 주부터 예산 심사 최종 증액·삭감 권한 지녀 사실상 마지막 관문 여야 지역 국회의원 초당적 대처 필요한 때

각 지자체가 이번 예산소위 심사를 놓고 막판 국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

야 반응이 다른데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1월 내내 정쟁이 이어질 경우 자칫 엉뚱한 불똥이 될 수도 있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강원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누구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깨가 무겁다.